

##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 분노 수준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궁호\*      김지연      최경순  
서강대학교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의존적인 관계 속의 존재로 파악하므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및 내집단의 조화의 추구가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내집단의 조화를 해치는 분노 같은 정서는 적극 통제하고, 타인의 정서를 함께 경험하여 관계의 조화에 기여하는 공감 능력은 매우 권장된다.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유리적인 독립적 존재로 파악하여 개인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므로 자기실현이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개인의 내적 속성의 적극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분노 같은 정서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집단중심성향자 집단과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으로 나누어 확인해 보았다. 연구 1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 집단이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분노 수준은 낮으며, 분노표출을 통제하는 경향은 높는데, 이러한 분노통제 행동은 두 문화성향 집단의 분노 수준의 차이에 의해 매개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 집단이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에 비해 분노통제 경향이 강한 것은 이들의 공감 수준이 높기 때문임이 확인되었다. 즉, 두 집단의 공감 수준을 통제하면 분노통제 행동의 문화성향 집단간 차이가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유형에 따른 정서 표출 규칙의 차이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문화성향(집단중심성향·개인중심성향), 분노 수준, 분노통제, 공감, 정서의 표출 규칙

관계중심적 인간관을 주축으로 세상사를 이해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의존적인 관계 속의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의무를 사회 행위의 원동력으로 봄으로써 개인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및 내집단의 조화의 추구가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된다. 이에 비해, 개체중심적인 인간관이 지

배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유리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개인의 속성(욕구·감정·성향 등)을 행위의 원동력으로 봄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독특성의 추구가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된다.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주의의 초점의 차이는 두 문화

\* 교신저자 : 조궁호, (121-742) 서울 마포구 신수동 1,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705-8560,  
E-mail : ghcho@sogang.ac.kr

권에서의 자기표현의 양식을 다르게 한다. 즉, 관계중심적 인간관이 지배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및 내집단의 조화가 주의의 초점으로 떠오름으로써, 개인적 욕구나 감정 및 목표의 추구는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게 되기 쉽다고 인식하여, 가능하면 자기를 억제하여 양보하고 겸양하며 협동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는 달리, 개체중심적인 인간관이 지배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독특성 및 개체로서의 자기실현이 주의의 초점으로 떠오름으로써, 개인적 욕구와 감정 그리고 목표의 추구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적극적이고 솔직한 자기표현과 자기고양을 강조한다(공중호, 1993, 1996, 1997, 1999, 2003a, 2006, 2007a, b, 2008; Hofstede, 1980, 1991; Kagitchbasi, 1997; Markus & Kitayama, 1991a, b; Triandis, 1989, 1995).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억제가 문화적 명제로 부각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자기주장이 문화적 명제로 부각된다. 이러한 자기표현 양식의 문화차는 정서표현의 영역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인관계 상황의 조절을 일차적인 기능으로 하는 정서인 분노(anger) 감정의 표출과 통제(Campos, Campos, & Barrett, 1989; Kalat & Shiota, 2007; Lemerise & Dodge, 1993)의 장면에서 문화유형에 따른 정서표현의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atsumoto, 2000; Oatley, Keltner, & Jenkins, 2006).

#### 문화유형과 분노의 표출 및 통제

분노는 어떤 외적인 힘, 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인의 계획, 목표, 또는 안녕의 추구가 간섭받거나 훼손받는다고 인식될 때,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욕구가 좌절되거나, 정당하지 않은 비판을 받거나, 적절하게 배려받지 못할 때 유발된다. 즉 “분노의 핵심은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는 옳지 않다는 신념, 곧 외부로부터 오는 장애나 방해 또는 비판이 옳지 않다는 신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Reeve, 2005, p.307). 말하자면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욕망 혹은 그 사람을 몰아내려는 추동과 관련된 정서 상태”(Kalat & Shiota, 2007, p.189)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노는 개인의 목

표 추구를 방해하거나 욕구를 좌절시키는 사람에 대한 공격행동을 유발한다(Berkowitz, 1990; 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Ekman, 2003; Lemerise & Dodge, 1993; Kalat & Shiota, 2007; Reeve, 2005).

이렇게 분노는 주로 다른 사람에 의한 욕구 좌절에 의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공격행동을 야기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적 정서(interpersonal emotion)의 성격이 강하며(Averill, 1982), 따라서 분노는 일차적으로 대인관계적 기능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정서이다(Campos et al., 1989; Lemerise & Dodge, 1993). 바로 이러한 사실이 분노의 체감과 표출에 관한 “표출 규칙”(display rules : Ekman, 2003; Ekman & Friesen, 1969)<sup>1)</sup>에 강한 문화차가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이다(Lemerise & Dodge, 1993; Matsumoto, 2000; Oatley et al., 2006).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호 연계적인 관계의 화목과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는 분노와 같은 정서의 체감과 표현을 심하게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계의 화목과 조화보다는 개체로서의 자기실현을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분노와 같은 정서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Markus와 Kitayama(1991a, b; 1994)에 따르면, 강한 집단주의 문화유형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가족이나 동료 같은 내집단원들 사이의 분노 체감과 표출을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강한 개인주의 문화유형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계 미국인들은 가족이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분노의 체감과 표출을 비교적 일상적인 것으로 수용함이 밝혀지고 있다.

Averill(1982)은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배우자·부모·자녀·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주 1회 정도 분노를 표출함을 발견하였다. 그

1) 정서의 표출 규칙은 “정서의 관리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규범으로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특정한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말한다.……이러한 규칙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정서의 표현을 약화시키거나, 과장하거나, 완전히 숨기거나, 또는 차폐시키도록 규정한다”(Ekman, 2003, p.4). 이는 본래 Ekman과 Friesen(1969)이 제안한 개념으로, 정서의 문화차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에 따르면, 서구인들에게서 이러한 분노의 표출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조정의 기능을 한다. 그의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화난 사람의 62%와 그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70%가 분노표출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조정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즉, 서구인들과 같은 개인주의자들은 자기의 권리나 독립성이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를 경험하므로(Lewis, 1993), 자기의 권위나 독립성 또는 자기상의 증진이 분노표출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개인주의 사회와는 달리,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분노가 관계의 조화를 깨뜨리는 위험성이 큰 정서라고 인식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Matsumoto(1989; Matsumoto & Ekman, 1989; Matsumoto, Kudoh, Scherer, & Walbot, 1988)는 일본의 대학생들은 가족이나 친구 같은 내집단 성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분노의 정서를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집단주의 사회에 속하는 북극지방 우트쿠 이누이트(Utku Inuit) 족이나(Briggs, 1970) 남태평양의 산호초섬인 이팔루크(Ifaluk) 원주민들은(Lutz, 1988; Oatley et al., 2006) 분노를 전혀 경험하지 않거나 또는 전혀 표출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타인에게서 분노의 표출을 목격하는 것이 비교적 회귀한 사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Miyake, Campos, Kagan과 Bradshaw(1986)는 미국과 일본의 유아들이 어머니가 보이는 여러 정서에 대한 반응 시간을 측정된 연구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들은 11개월짜리 유아들의 어머니가 기쁨·공포 및 분노의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면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제시해 주었을 때, 이에 접근하려는 동작을 취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기쁨과 공포 조건에서는 문화권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유독 분노 조건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가 화난 소리를 내면서 장난감을 제시했을 때, 미국의 유아들은 18초 만에 접근 동작을 취했으나, 일본의 유아들은 48초가 지나야 접근 동작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에서는 기쁨이나 공포 같은 정서에 비해 대인관계의 조화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는 분노의 표출은 비교적 회귀한 사건이므로,<sup>2)</sup> 일본의 유아들은 어머니의 분노

표현에 의해 상대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kman(1982, 2003)은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표출 규칙은 개인이 어릴 때부터 사회화되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절 기법을 사용하여 정서를 억제 또는 표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출 규칙들은 사회적 맥락 내에서 정서의 표현을 조절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표출 규칙은 사람들이 정서 상황에 적용할 때 사용하는 통제 유형과 양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연구 결과들은 정서, 특히 분노의 통제와 조절 양상의 문화차를 드러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서 표현을 조절한다”(조은경, 1995, p.35). 분노의 표현은 대인관계에 민감하므로, 가장 많이 조절되는 정서이다. 이러한 분노의 조절은 개인주의 사회보다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더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정서의 표현은 개인의 사적인 감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다만 대인관계의 조화와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인 도구적 행위(public instrumental action)로서 간주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Markus & Kitayama, 1991a, p.236).

2)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해 어느 심사위원은 “집단주의 사회인 또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집단주의의 문화적 이상(cultural ideal)에 어긋나는 행동(예 : 내집단 규범을 어긴다든지 집단의 조화를 해치는 행동 등)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사회인 또는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오히려 강한 분노를 경험하고 또 표출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분노의 표출이 회귀한 사건”이라는 진술에는 어느 정도 유보조건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 내집단 규범의 위반이나 내집단의 조화를 해치는 행동 등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는 개인적 욕구 좌절의 상황에서 유발되는 개인중심적인 정서라기보다는 사회규범중심적인 羞惡(부끄러움)과 연결되는 정서일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분노는 개인의 목표 추구가 방해받거나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개인중심적 정서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은 내포적인 의미를 갖는 정서라고 볼 수 있겠는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따라서 분노를 일반적인 연구 경향대로 개인적인 욕구 좌절의 결과 유발되는 개인중심적인 정서라고 보고, 이는 집단주의 사회 또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집단의 조화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극히 억제해 왔던 정서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본고에서와 같은 해석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기필자(조국호, 2007a, pp.275-309) 참조.

### 문화유형과 공감 수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개인보다는 내집단의 통합과 조화이다.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집단을 자기의 확장으로 받아들여 내집단의 결속과 내집단원들의 복지에 관심이 깊고, 내집단에 대해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가진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타인이나 내집단보다는 자기 자신이다.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집단과는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의 결속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갖는다(조궁호, 1993, 1996, 1997, 1999, 2000, 2002, 2003a, 2005, 2007a, b, 2008; Triandis, 1995;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주의 및 관심의 차이는 곧바로 문화유형에 따른 공감(empathy)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Matsumoto, 2000, p.379)이다. 이러한 공감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통합과 조화의 유지에 기여한다 (Batson & Coke, 1981; Hoffman, 2000; Johnson, 1990; Krebs, 1975; Matsumoto, 2000; Oatley et al., 2006; Redmond, 1989; Triandis, 1994a, 1995).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내집단의 결속과 통합 및 내집단원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깊은 집단주의 사회인들은 개인주의 사회인들보다 내집단원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선기필자와 그 동료들(조궁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 2002)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로 나누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공감 측정 척도를 실시하여, 이 두 집단의 공감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집단중심성향자들의 공감 수준이 개인중심성향자들의 공감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두 문화성향 집단 사이의 주의의 초점의 차이(개인중심성향자=자기; 집단중심성향자=타인·관계)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거나,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는 공감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 및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느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정서적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자기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비교적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적게 되고,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였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화유형 또는 문화성향 집단 사이의 이러한 공감 수준의 차이가 앞에서 살펴본 집단주의 사회와 개인주의 사회의 분노통제 수준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감이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감 능력이 큰 사람들은 자기가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조화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방이 당혹감을 느끼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대인관계 장면에서 가능하면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본 연구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문화유형에 따른 분노와 그 통제 수준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이어서 분노통제 수준의 문화차가 과연 문화유형에 따른 공감 능력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를 두 개의 관련된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문화 집단간(국가간)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차 연구 방법을 원용하여 동일 문화내의 문화성향 집단간 비교의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sup>3)</sup> 즉,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을 집단주의 성향

3) Triandis(1994a, 1995;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Triandis, et al., 198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는 한 문화집단 내의 성원들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들을 집단중심성향자(allocentrics)와 개인중심성향자(idiocentrics)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집단주의 사회는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많은 사회이고, 개인주의 사회는 그 반대인 사회로서(Triandis, 1994a),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는 각각 집단주의 사회와 개인주의 사회의 제반 심리적·행동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문화집단 내의 성원들에게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특징적인 자기관이나 가치관 등 여러 특성의 차이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서 같은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는 문화 내적 비교 연구의 방법으로 문화차를 연구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교계홍, 2001;

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큰 집단중심성향자들과 개인주의 성향이 집단주의 성향보다 큰 개인중심성향자로 나누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분노의 수준은 낮고 분노통제의 수준은 높은지(연구 1), 그리고 전자가 후자보다 공감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공감 수준의 차이가 분노통제 수준의 차이를 매개하는지(연구 2)를 확인해 보려 하였던 것이다.

### 연구 1

이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체험과 분노표출 수준은 낮고, 반대로 분노통제 수준은 높을 것이라는 예언을 검증하려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노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pielberger (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 State-Trait Anger Expression Scale)의 한국판(전경구, 김동연, 이준석, 2000)으로 응답자들의 분노 수준과 분노표현 행동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STAXI는 Spielberger와 동료들이 개발한 “분노체험 척도”(STAS : State-Trait Anger Scale; Spielberger, Jacobs, Russel, & Crane,

설선혜, 최인철, 2008; 이수원, 이현남, 1993; 장성수, 이수원, 정진곤, 1990; 조궁호, 2002, 2003b, 2005; 조궁호, 김소연, 1998; 조궁호, 김은진, 2001; 조궁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 2002; 조궁호, 명정완, 2001; 조궁호, 이재영, 2007; 한규석, 오점조, 1993), 중국인과 일본인(Chiao, Harada, Komeda, Li, Mano, Saito, Parrish, Sadato, & Iidaka, in press), 유태인(Kurman, 2001, 연구 2) 및 미국인(Sedikides, Gaertner, & Toguchi, 2003, 연구 2; Suh, 2002, 연구 1)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모두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가 각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의 대비에서 예측되는 행동과 일치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문화 내적 비교 연구의 문화차 연구 방법으로서의 가치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단일 문화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도 문화 비교적 이론을 다루고 있거나 그러한 함의가 크다면 문화차 비교 연구라 볼 수 있는 것이다(Smith, 1995). 이러한 단일 문화 내의 문화차 연구 방법은 문화간 비교 연구가 가지는 “문화 변용, 문화특수적인 개념, 또는 문화특수적인 반응 편향 등에 기인하는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진전”(Sedikides et al., 2003, p.70)이라 볼 수 있다. 즉, 동일 문화 내 하위집단 간 비교 연구 방법은 문화집단 간 비교 연구의 방법을 보완하는 문화차 연구의 강력한 도구인 것이다. 문화 비교 연구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동일 문화 내적 분석 연구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는 선기필자(조궁호, 2003a, pp.88-90, 99; 2003b, pp.81-83; 2005, p.46; 조궁호, 이재영, 2007, pp.110-111) 참조.

1983)와 “분노표현 척도”(AX : Anger Expression Scale; Spielberger, Johnson, Russel, Crane, Jacobs, & Worden, 1985)를 통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 중 STAS는 특정 상황에서 체험하는 일시적인 분노 수준(상태분노)과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체험하는 만성적이고 안정적인 경향성(특성분노)으로 나누어 분노체험 수준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척도이다. 앞의 이론적 고찰에 따르면, 개인중심성향자들이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이 두 차원의 분노 수준이 모두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AX는 분노표현 행동을 “분노표출”(anger-out), “분노유지”(anger-in), “분노통제”(anger-control)의 세 차원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척도이다. 여기서 “분노표출” 차원은 자신의 분노를 신체적 행위나 비난, 욕설, 극단적인 모욕 등으로 직접 표출하는 정도를 말한다. “분노유지” 차원은 분노를 직접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4) “분노통제” 차원은 분노의 상태를 자각하고 감속하면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노를 조절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한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 앞에서의 이론적 고찰에 비추어 보면, “분노표출”과 “분노유지”의 경향성은 개인중심성향자들이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높지만, “분노통제”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높을 것이라 예측된다.

### 방 법

#### 연구참가자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4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839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은 409명

4) 전경구 등(2000)은 STAXI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하면서 이 차원을 “분노억제”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차원에 속하는 문항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 있다”, “똥해지거나 토라진다”, “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같은 것으로,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지는 않으면서 이를 마음 속에 간직하여 담아두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차원이라 여겨져, 여기서는 이 차원을 “분노유지”라 명명하였다.

(48.7%)이고, 여학생은 430명(51.3%)이었다.

####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와 3쪽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상태분노 척도 1쪽, 특성분노 척도 1쪽, 분노표현 척도 1쪽)가 사용되었다. 성별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 연구 전체 소개문(평소 생활 태도와 정서 경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한 다음, 개인의 응답은 전체적인 통계 처리의 자료로만 사용될 뿐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는 8줄 짜리 글)을 제일 첫 장에 넣어, 모두 6장으로 소책자를 구성하였다.

#### 문화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개인중심성-집단중심성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 Triandis, Bhawuk과 Gelfand(1995)가 제작한 INDCOL척도를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이 우리나라에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vertical/horizontal)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수평적 유형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VI)는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HI)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VC)는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수평적 집단주의(HC)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 Singelis 등(1995)의 척도는 이 네 하위 유형을 측정하는 Likert형 7점 척도(1 : 전적으로 아니다; 2 : 어느 정도 아니다; 3 : 약간 아니다; 4 : 중간; 5 : 약간 그렇다; 6 : 어느 정도 그렇다; 7 : 전적으로 그렇다)의 태도 문항 8개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은 우리나라 대학생 326명에게 이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Singelis 등(1995)의 것과 거의 유사한 요인 구조를 얻어 내었으며,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VI=.71, HI=.81, VC=.68, HC=.7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sup>5)</sup> 또

한 이 척도는 우리 의식 설문지와 상관 분석과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 유형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존 및 예언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김기범, 1996; Kim & Kim, 1997).

####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분노 척도는 Spielberger(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를 전경구 등(2000)이 한국의 문화적·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여 번안하고 수정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4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노의 경험적 수준을 상태분노와 특성분노의 하위 척도(각각 10문항씩)로, 분노의 표현적 측면을 분노표출·분노유지·분노통제의 하위 척도(각각 8문항씩)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분노 수준과 표현 행동을 Likert 형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거의 그렇지 않다; 3 : 약간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태분노는 “지금”의 기분을, 특성분노는 “평소에” 분노를 느끼는 빈도와 경향성을, 분노표현 척도들은 “내가 화가 날 때” 하는 행동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경험 수준이 높거나 각각의 분노표현 행동을 많이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된다.

전경구 등(2000)이 우리나라의 대학생(341명)과 성인(101명)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상태분노=.93, 특성분노=.86, 분노표출=.74, 분노유지=.76, 분노통제=.8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에게서 얻은 내적 합치도는 상태분노=.92, 특성분노=.85, 분노표출=.78, 분노유지=.74, 분노통제=.78로, 전경구 등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이 척도를 고등학생에게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5) 이러한 내적 합치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얻어진 것이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Cronbach  $\alpha$ 를 계산해 보면 VI=.78, HI=.76, VC=.69, HC=.77로, 대학생에게서 얻어진 그것과 거의 유사하여, 고등학생들에게도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절차**

선정된 학교의 해당 학급 담임 교사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소개와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 후, 각 학교에서 담임 교사의 지도 아래 학교 수업 시간에 집단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내외였다.

**결과 및 해석**

**문화성향 집단 선별**

각 응답자별 전체 개인중심성향(VI+HI)과 전체 집단중심성향(VI+HC)의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중심성향 분포와 집단중심성향 분포를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이 중 “집단중심성향 고-개인중심성향 저”인 152명(18.1%)을 집단중심성향 집단으로, “집단중심성향 저-개인중심성향 고”인 156명(18.6%)을 개인중심성향 집단으로 선별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상관 분석의 경우에는 전체 839명의 자료를, 그리고 문화성향 집단간 차이 분석의 경우에는 이들 308명의 자료를 주축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화성향과 분노경험 수준**

문화성향에 따른 상태와 특성의 분노 수준의 차이를 상관 분석과 문화성향자 집단 간 평균차 분석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상관 분석**

전체 참가자(839명)의 두 문화성향과 분노경험 수준 사이의 상관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성향과 분노경험 수준의 상관(r)

	집단중심성향	개인중심성향
상태분노	-.22***	.17**
특정분노	-.24***	.36***

\*\*  $p < .01$ , \*\*\*  $p < .001$

이 표에서 보듯이, 집단중심성향은 두 차원의 분노경험

수준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집단중심성향이 높을수록 일시적인 상태분노와 만성적으로 분노를 경험하는 경향성(특성분노)이 모두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중심성향과 분노경험 수준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중심성향이 높을수록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수준이 모두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성향자 집단 간의 차이**

집단중심성향은 높고 개인중심성향은 낮은 집단중심성향자 집단(152명)과 개인중심성향은 높고 집단중심성향은 낮은 개인중심성향자 집단(156명) 별 두 차원의 분노 경험 수준의 평균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면, 상태분노와 특성분노에서 모두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이 집단중심성향자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상태분노 :  $F=10.62$ ,  $df=1/306$ ,  $p < .01$ ; 특성분노 :  $F=45.42$ ,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개개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분노(상태분노)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이고도 안정적으로 분노를 경험하는 경향성(특성분노)도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 분석과 평균차 분석의 결과들은 개인중심성향자들이 경험하는 분노 수준이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경험하는 분노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언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분노와 같이 대인관계의 조화를 해칠 가능성이 큰 정서는 관계의 조화와 화목을 추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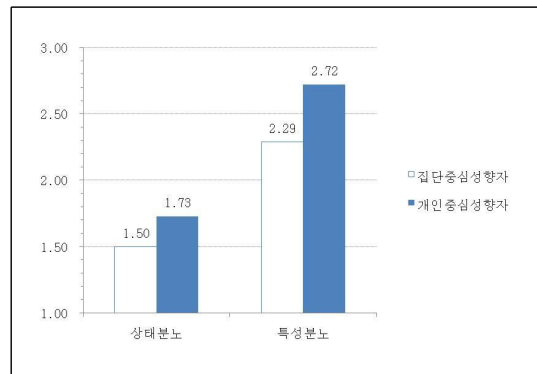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성향 집단에 따른 분노수준의 차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회피되지만, 개인의 독 특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분노와 같은 정서도 자연스럽게 수용된다는 연구 결과들(Averill, 1982;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 Matsumoto, 1989, 2000; Matsumoto & Ekman, 1989; Matsumoto et al., 1988; Miyake et al., 1986; Oatley et al., 2006; Triandis, 1994b)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문화성향과 분노표현 행동**

문화성향에 따른 세 차원의 분노표현 행동(분노표출 · 분노유지 · 분노통제) 수준의 차이를 상관 분석과 문화성향 집단 간 평균차 분석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상관 분석**

전체 참가자의 두 문화성향과 세 차원 분노표현 행동 수준 사이의 상관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문화성향과 분노표현 행동 수준의 상관(*r*)

	집단중심성향	개인중심성향
분노표출	-.16**	.17**
분노유지	-.26***	.14**
분노통제	.16**	-.14**

\*\**p*<.01, \*\*\**p*<.001

이 표에서 보듯이, 집단중심성향은 분노표출과 분노유지 행동 수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분노통제 행동 수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중심성향은 분노표출과 분노유지 행동 수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분노통제 행동 수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중심성향이 높을수록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이를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경향이 높고,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경향은 낮아지지만, 집단중심성향이 높아지면 분노를 통제하는 경향은 높아지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경향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문화성향자 집단 간의 차이**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세 차원 별 분노표현 행동 수준의 평균치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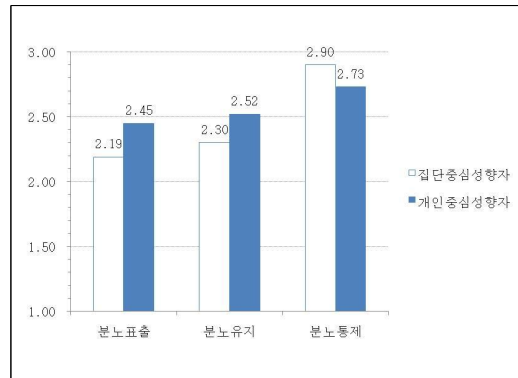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성향 집단에 따른 분노표현양식의 차이

그림 2에서 보듯이, 분노표출과 분노유지 행동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이 집단중심성향자 집단보다 높지만, 분노표출 :  $F=17.52, df=1/306, p<.001$ ; 분노유지 :  $F=13.00, p<.001$ , 분노통제 행동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 집단이 개인성향자 집단보다 높다,  $F=8.34, p<.01$ . 이러한 결과는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이를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경향이 높고, 반대로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대인관계에서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 분석과 평균차 분석의 결과들은 분노의 체험 장면에서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이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고, 집단중심성향자들은 분노의 표출이 대인관계의 조화를 깨뜨릴 위험을 고려하여 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예언을 지지해 주고 있다.

**문화성향과 분노경험 수준 및 분노표현 행동**

지금까지 문화성향에 따라 분노의 경험 수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분노표현 행동 양식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문화성향에 따라 분노를 표현하는 양식에 차이가 나는 것이 혹시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분노의 경험 수준이 다른 데에 근본적인 까닭이 있지는 않은지 하는 사실이다. 즉, 개인중심성향자들이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덜 통제하는 것은 개인중심성향자들이 경험하는 분노의 수준이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경험하는 분노의 수



표 3. 문화성향에 따른 분노표현 행동의 공변량분석 결과(F)

	분노 표출	분노 유지	분노 통제
원래의 변량 분석	17.52***	13.00***	8.34**
공변량 분석 : 상태분노 공변인	11.32***	6.42*	6.92**
: 특성분노 공변인	.16	2.05	.37
: 분노전체 공변인	.01	.93	1.01

\* $p < .05$ , \*\* $p < .01$ , \*\*\* $p < .001$

준보다 기본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문화성향 집단의 분노경험 수준의 차이가 문화성향에 따른 분노표현 행동의 차이를 유발한다면, (i) 문화성향 집단에 따라 분노경험의 수준이 달라지고, (ii) 문화성향 집단에 따라 분노표현 행동이 달라지면서, 동시에 (iii) 분노경험 수준을 통제할 경우, 문화성향이 분노표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Baron & Kenny, 1986; Fiske, Kenny, & Taylor, 1982; Sedikides et al., 2003). 앞의 결과들에서 (i)과 (ii)의 조건은 충족되었다. 여기에서는 (iii)의 조건을 검증해 보기 위하여, 분노경험(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및 분노 전체)을 공변인(covariate)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제거하여도 문화성향 집단에 따른 세 차원 분노표현 행동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공변량 분석(analysis of covariance)으로 검증하여 보았다.6)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표는 원래의 변량 분석 결과와 각 공변량 분석의 결과를 비교해서 읽어 보아야 한다. 우선 이 표에서 보면, 공변량 분석 이전의 원분석에서는 문화성향 집단 간에 세 차원 분노표현 행동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분노표출 :  $F = 17.52, p < .001$ ; 분노유지 :  $F = 13.00, p < .001$ ; 분노통제 :  $F = 8.34, p < .01$ , 상태분노 수준을 공변인으로 하여 통제하여도 세 차원의 분노표현 행동의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분노표출 :  $F = 11.32, p < .001$ ; 분노유지 :  $F = 6.42, p < .05$ ; 분노통제 :  $F = 6.92, p < .01$ . 이는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분노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 집단과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의 분노표현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성분노 수준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해 보면, 세 차원 분노표현 행동의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가 모두 사라지고 있다, 분노표출 :  $F = .16, p > .69$ ; 분노유지 :  $F = 2.05, p > .15$ ; 분노통제 :  $F = .37, p > .54$ . 이는 만성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분노 경향성, 곧 상당한 시간에 걸쳐 안정되게 나타나는 개인의 성격적 경향성인 특성분노의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 집단과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의 분노표현 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통제 행동을 많이 보이고, 반대로 개인중심성향자들이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표출과 분노유지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중심성향자들이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를 경험하는 성격적 경향성이 더 크기 때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표 3에서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수준을 합하여 전체 분노 수준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두 문화성향 집단 사이의 분노표현 행동에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분노표출 :  $F = .01, p > .91$ ; 분노유지 :  $F = .93, p > .33$ ; 분노통제 :  $F = 1.01, p > .31$ . 또한 그림 1에서 보면, 특성분노의 수준이 상태분노 수준보다 높으며, 두 문화성향 집단간 차이도 상태분노(.23)보다는 특성분노(.43)의 경우에 더 크다. 즉, 문화성향 집단 간 분노표현 행동의 차이는 주로 두 문화성향자들이 분노를 경험하는 성격적 경향성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개인중심성향자들이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를 경험하는 빈도와 그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연구 2

연구 1에서는 개인중심성향자들이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의 경험을 더 자주 그리고 많이 하며, 분노를

6) Fiske, Kenny와 Taylor(1982, p.108)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에 따른 공변량 분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매개변인(이 경우는 분노경험 수준)과 종속변인(이 경우는 분노표현 행동 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검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분노경험 수준(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전체)과 분노표현 행동 수준(분노표출, 분노유지, 분노통제) 사이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검출되었는데, 그 분포 범위는  $r = -.13 \sim r = .64$ 로, 모두  $p < .01$  수준 이하에서 유의미하였다.

더 많이 표출하거나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경향도 더 높음이 밝혀졌다. 이에 비해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경험의 수준은 낮고, 분노를 통제하는 행동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 이어서, 집단중심성향자들과 개인중심성향자들의 분노통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이 두 집단의 공감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 검토해 보려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집단주의는 내집단원과 조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원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하는 성향 또는 능력이 높게 평가한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사회인들은 개인주의 사회인들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Hoffman, 2000;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 Matsumoto, 2000; Oatley et al., 2006; Triandis, 1994a, 1995). 또한 한 사회 내에서도 집단중심성향자들의 공감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높다(조공호 등, 2002).

이렇게 공감 수준이 높으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대인관계의 조화와 통합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감 수준이 높으면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에게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박성희, 1994; Hoffman, 2000; Matsumoto,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측을 집단중심성향자들과 개인중심성향자들의 분노통제 행동과 공감 수준의 차이를 통해 검토해 보려 한다.

## 방 법

### 연구참가자

서울 시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2학년생 599명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은 296명(49.4%), 여학생은 303명(50.6%)이었다.

###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와 1쪽의 “분노통제 척도” 그리고 2쪽의 “공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 연구 전체 소개문을 제일 첫 장에 넣어, 모두 6장으로 소책자를 구성하였다.

### 문화성향 척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성향 척도는 연구 1의 것과 같았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얻은 각 하위 척도 별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VI=.72, HI=.74, VC=.61, HC=.76으로, 연구 1과 비슷하였다.

### 분노통제 척도

이 연구에서는 연구 1에서 사용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가운데, 분노통제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분노통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78이었다.

### 공감 척도

이 연구에서 공감 척도로는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 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를 기초로 홍미화(2002)가 한국판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Davis는 공감을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별 하위 척도를 제작하였다. 관점 취하기 척도(Perspective-Taking Scale)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 서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예 :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한다)을, 상상 척도(Fantasy Scale)는 자신이 영화·소설·연극 등 가상의 상황 속의 인물이 되어보는 상상력(예 :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의 느낌에 정말로 깊이 빠져든다)을, 공감적 관심 척도(Empathic Concern Scale)는 관찰 대상에 대해 온정·자비·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예 : 누군가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에 대해 일종의 보호심을 느낀다)를, 개인적 고통 척도(Personal Distress Scale)는 타인의 고통스런 상황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공포·불편함 등의 정도(예 : 누군가가 부상당하는 것을 볼 때, 차분하게 있을 수 없다)를

측정한다. 하위 척도별 문항 수는 7개씩 총 28개인데, Likert 형 7점 척도(1 : 전적으로 아니다, 2 : 어느 정도 아니다, 3 : 약간 아니다, 4 : 중간, 5 : 약간 그렇다, 6 : 어느 정도 그렇다, 7 : 전적으로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sup>7)</sup>

홍미화(2002)의 연구에서 각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70~.78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고, 60일에서 75일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62\sim.81$  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가자들에게 이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Davis(1980) 및 홍미화(2002)와 거의 일치하는 요인 구조를 얻어 내었으며, 하위 척도들의 Cronbach  $\alpha$ 는 .63~.75, 전체 척도는 .80이었다.

#### 절차

이 연구의 절차는 연구 1과 같았다.

### 결과 및 해석

#### 문화성향 집단 선정

이 연구에서도 연구 1과 같은 방법으로 집단중심성향자 121명(20.2%)과 개인중심성향자 118명(19.7%)을 선정하였다. 여기서도 상관 분석의 경우에는 전체 599명의 자료를, 그리고 문화성향 집단간 차이 분석의 경우에는 이들 239명의 자료를 주축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수준

문화성향에 따른 분노통제 행동 수준의 차이를 상관 분석과 문화성향자 집단 간 평균차 분석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 상관 분석

전체 참가자(599명)의 분노통제 행동 수준은 집단중심성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 $r=.19, p<.01$ )을, 그리고 개인중심성향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r=-.14, p<.05$ )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 1과 같은 결과로서, 집단중심성향이 높아질수록 분노통제 행동이 많아지지만, 이와

는 반대로 개인중심성향이 높아질수록 분노통제 행동 수준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 문화성향자 집단 간의 차이

집단중심성향자 집단(121명)과 개인중심성향자 집단(118명)의 분노통제 행동 수준의 평균치는 각각 2.54( $SD=.59$ )와 2.35( $SD=.57$ )로, 집단중심성향자들의 분노통제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F=6.27, df=1/237, p<.05$ . 이 결과도 연구 1과 일치하는 것이다.

#### 문화성향과 공감 수준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 지수”는 관점 취하기 척도, 상상 척도, 공감적 관심 척도, 개인적 고통 척도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 척도에 대한 각 참가자들의 반응을 종합하여 그들의 전반적인 공감 수준으로 삼았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 상관 분석

전체 참가자의 공감 수준은 집단중심성향과는 매우 강한 정적 상관( $r=.56, p<.001$ )을 보이나, 개인중심성향과는 강한 부적 상관( $r=-.33, p<.001$ )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중심성향이 강할수록 공감 수준이 높아지지만, 개인중심성향이 강할수록 공감 수준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 문화성향자 집단 간의 차이

집단중심성향자들의 전체 공감 수준의 평균치는 4.79( $SD=.62$ )이고, 개인중심성향자들의 공감 수준 평균치는 4.25( $SD=.72$ )로,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F=36.90, df=1/237, p<.001$ .

이러한 상관 분석과 평균차 분석의 결과들은 선행연구(조공호 등, 200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집단중심성향자들이 타인의 관점을 취하여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느끼는 공감의 능력이 더 발달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 연구의 예측을 지지해 주고 있다.

7) 홍미화(2002)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여기서는 7점 척도로 되어 있는 문화성향 척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7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행동 및 공감 수준

연구 2의 기본 목적은 문화성향에 따라 분노통제 행동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문화성향에 따른 공감 수준의 차이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사실을 밝혀보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문화성향 집단에 따라 분노통제 행동의 크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문화성향 집단에 따라 공감 수준도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공감 수준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제거해 버렸을 때 문화성향 집단에 따른 분노통제 행동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공감 수준이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행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Baron & Kenny, 1986; Fiske et al., 1982; Sedikides et al., 2003).<sup>8)</sup> 여기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공감 수준을 공변인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제거하여도 문화성향 집단에 따른 분노통제 행동의 크기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공변량 분석으로 검증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도 공변량 분석 결과는 공변인의 효과를 제거하지 않은 원래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서 읽어야 한다. 이 표에서 보면, 원래의 분석에서는 문화성향 집단 사이에 분노통제 행동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검출되었으나,  $F=6.27, p<.05$ , 공감 전체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하면 그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  $F=2.79, p>.09$ . 이러한 결과는 공감 수준이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행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통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은 전자의 공감 수준이 후자보다 높은 데에 기인하는 결과인 것이다.

공감이란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상태를 상상해 보고, 그가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다(Matsumoto, 2000). 이러한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여 그가 처한 상태를 상상해보는 인지적 능력과 타인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는 정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박성희, 1994; Davis, 1980; Feshbach, 1982; Hoffman, 2000). 그러므로 공감 능력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핵으로 하여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주의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중시하는 사회이고,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에 살고 있거나

8) 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매개변인(공감 수준)과 종속변인(분노통제 수준) 사이의 상관은  $r=.22(p<.001)$ 로 유의미하였다.

표 4. 문화성향에 따른 분노통제 행동의 공변량분석(F)

원래의 변량 분석	6.27*
공감을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	2.79

집단중심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공감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또 나의 분노표출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게 될 심리적 압박감이나 당혹감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것이므로, 분노통제 행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 논의

본고에서는 두 개의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집단 내의 관계의 화목과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인중심성향자들에 비해 대인관계 상황에서 분노를 통제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경향은 전자가 후자보다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경험하는 성격적 경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과 공통의 정서를 경험하는 공감의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혀내었다.

연구 1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분노(상대분노)의 수준과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적 경향성을 통해 경험하는 분노(특성분노)의 수준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낮다는 사실과 함께,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이러한 분노를 진정시키고 조절하는 분노통제 행동을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많이 하며, 반대로 개인중심성향자들은 분노를 직접 표출(분노표출)하거나 마음 속에 간직하는(분노유지) 행동을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통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은 연구 2에서도 거듭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표현 행동의 문화 집단 간 차이는, 문화성향 집단 사이의 분노 수준과 공감 능력의 차이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다. 연구 1에서 분노 수준을 공변인으

로 하여 문화성향 집단 간 분노표현 행동의 차이를 공변량 분석해 본 결과, 분노 전체를 공변인으로 하였을 때 문화성향 집단간 분노표현 행동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분노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하면, 개인중심성향자들이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표출과 분노유지 행동을 더 많이 하고, 후자가 전자보다 분노통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수준이 문화성향과 분노표현 행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 효과는 만성적인 분노 경험 경향성으로 인한 특성분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분노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2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인 공감 능력이 더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감 능력은 문화성향 집단 간 분노통제 행동의 차이를 매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공감 능력의 차이를 공변인으로 하여 그 차이를 제거하면,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분노통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현상이 사라졌던 것이다. 이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분노를 통제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그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의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 문화유형과 정서사회화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문화유형에 따라 정서사회화(emotion socialization; Saarni, 1993)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의 견해(예 : Harré, 1988)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서에 관한 사회구성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어느 사회에서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감정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상을 주거나 처벌을 함으로써, 특정 정서의 체험과 그 표현을 사회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특정 정서의 체험을 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서를 많이 체험하려 노력하게 되고 또 이러한 정서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만, 이와 다른 정서의 체험과 표현은 억압하게 된다(Matsumoto, 2000;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 Oatley et al., 2006; Saarni, 1993).

집단주의 사회 또는 집단중심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는 내집단원과의 관계의 조화가 주의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되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계의 조화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서나 능력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사회 또는 집단중심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합적 정서”(integrating emotions; 예 : 부끄러움 · 공감 등)가 “과다인지 정서”(hypercognized emotion; Levy, 1984; Heelas, 1988; Oatley et al., 2006)가 될 것이다.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서를 표현하는 용어도 많아지고 세분될 것인데, 예를 들면 집단주의 사회인 중국에서는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용어가 113가지(예 : 羞 · 恥 · 惡 · 忤 · 悔 · 慙 · 慚 · 愧 · 慊 · 慝 · 忸 등)나 된다는 보고가 있다(Li, Wang, & Fisher, 2004).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주의 사회나 개인중심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자기실현이 주의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되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 및 자기 권리의 추구에 도움이 되는 정서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사회 또는 개인중심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개인 사이의 분화와 독립을 촉진하거나 자기의 권익을 신장해 줄 수 있는 “분화적 정서”(differentiating emotion; 예 : 자부심 · 행복감 · 분노 등)가 과다인지 정서가 될 것이다(Heelas, 1988; Kemper, 1984;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

집단주의 사회의 과다인지 정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과소인지 되고(hypocognized), 반대로 개인주의 사회에서 과다인지 된 정서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과소인지 된다(Levy, 1984; Heelas, 1988; Oatley et al., 2006). 영어에서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표현하는 용어가 소수라는(예 : shame · shyness 등) 점이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 준다(Oatley et al., 2006). 반대로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사상적 배경(조공호, 2007a, b)인 유학의 경전에서는 분노를 표현하는 노(怒)는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치(恥)보다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9)

9) 『論語』에서 怒는 1회(雍也 2)만 나오고 있는 반면, 恥는 17회(學而 13; 爲政 3; 里仁 9, 22; 公治長 14, 24; 泰伯 13; 子罕 26; 子路 20; 憲問 1, 29)나 나오고 있으며, 『孟子』에서는 怒가 10회(梁惠王下 3, 9; 公孫丑下 12; 滕文公下 2; 離婁上 18; 萬章上 3) 나오는 데 비해, 恥는 19회(梁惠王上 5; 梁惠王下 3; 公孫丑上 7; 離婁上 7; 離婁下 18; 萬章下 5; 告子下 14;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분노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 보다 매우 낮은 반면, 타인의 입장에 서서 타인의 감정을 체험하는 공감 능력은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 사회 또는 집단중심의 가치 체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는 과소인지 정서이고, 반면 공감은 과다인지 정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와 유학사상

최고의 유학 경전인 『논어(論語)』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노(怒)는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맹자(孟子)』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분노는 품지도 말고, 또 드러내지도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안회(顔回)란 제자가 있어 배우기를 좋아하였는데, 그는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았다.<sup>10)</sup>

어진 사람은 친척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품어서도 안 되고, 원망을 해서도 안 되며, 다만 친애하고 아껴주어야 한다.<sup>11)</sup>

이 인용문들에서 보듯이, 유학사상은 분노의 경험이나 표출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분노통제의 사회화를 어려서부터 해왔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분노통제의 경향이 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 사회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향은 그 중에서도 유학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더욱 심할 것이다. 이

盡心上 6, 7) 나오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Harvard-Yenching Institute, 1940년 『論語引得』과 『孟子引得』 참조). 유학 경전의 내용이 동아시아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학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온 사상 체계라는 배경에서, 이러한 분석은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특징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 10) 有顔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論語』, 雍也 2; 이는 朱熹, 1177의 『論語集註』 雍也篇 2장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論語』의 인용은 이 예를 따른다.)
- 11) 仁人之於弟也 不藏怒焉 不宿怨焉 親愛之而已矣 (『孟子』, 萬章上 3; 이는 朱熹, 1177의 『孟子集註』 萬章上篇 3장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孟子』의 인용은 이 예를 따른다.)

연구에서 분노통제 행동이 집단중심성향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그들이 분노를 억제하고 경험하지 않으려는 성격적 경향성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드러난 결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학사상에서 분노는 억제해야 할 대표적인 정서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공감은 대표적으로 권장되는 정서 또는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자기 사상의 핵심인 인(仁)을 “무릇 인이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남이 먼저 이루게 해주는 일”<sup>12)</sup>이라거나, “자기가 하려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일,<sup>13)</sup> 또는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sup>14)</sup>이라 제시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인의 핵심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자가 인간의 사회성을 인간 존재의 중핵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느끼는 공감을 유학사상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 준다.

『대학(大學)』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느끼고 생각하는 공감을 “혈구지도(絜矩之道)”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인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윗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아야 하며, 아랫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앞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로 뒷사람에게 먼저 하지 말아야 하며, 뒷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로 앞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른쪽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로 왼쪽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하며, 왼쪽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로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을 자기를 척도로 하여 남을 헤아리는 “혈구지도”라 하는 것이다.<sup>15)</sup>

- 12)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論語』, 雍也 28).
- 13) 仲弓問仁 子曰……己所不欲 勿施於人(『論語』, 顔淵 2);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論語』, 衛靈公 23).
- 14) 樊遲問仁 子曰 愛人(『論語』, 顔淵 22).
- 15) 所惡於上 毋以使人 所惡於下 毋以事上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大學』, 傳 10 : 이는 朱熹, 1177의 『大學集註』 중 傳 10장을 가리킨다.)

여기서 상·하와 전·후의 관계는 단지 시·공간적인 인간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자·군신·장유  
의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좌·우  
의 관계는 횡적인 관계, 곧 부부·붕우의 관계를 가리키  
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혈구지도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 곧  
공감(共感)의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유학사상에서 강조  
하고 있는 대인관계의 연계성과 조화성을 이루는 바탕인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바로 혈구지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대학』의 관점이다.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보는 관점에 따라 개인 존재  
를 “의무·역할·배려의 복합체”로 파악하는 유학사상  
의 견해는, 이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집단주의 사회  
에 살고 있는 현대 동아시아인들의 심성과 행동의 특징으  
로 그대로 연결된다(조근호, 2003a, 2006, 2007a, b,  
2008).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타인과 맺고 있  
는 관계 및 관계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사람을 파악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회 행위  
의 일차적인 원천을 개인이 속해 있는 관계 속의 의무와  
역할 및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찾게 되고, 사회 행  
위의 목표를 관계 상대방과 연계성을 확립하고 조화를 이  
루는 데 둔다. 그 결과, 집단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들에게는 자기 자신보다는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  
집단이, 그리고 자기의 내적 성향(성격·능력·의도·욕  
구·정서)보다는 외적 행위 규범(역할·의무·배려)과  
상황적 요구가 주의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집  
단중심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느끼는 역지사지 또는 공감  
의 능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  
서 이러한 공감의 경향성은 일상생활에서 관계의 조화를  
해치는 분노와 같은 정서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  
성을 유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이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화유형(문화성향)에 따른 주  
의 초점의 차이→자기표현 양식의 차이→정서사회화의  
차이”를 기본틀로 하여 진행되었다. 물론 문화유형(문화  
성향)에 따른 자기표현 양식과 정서사회화의 차이가 전적

으로 주의 초점의 차이에만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지나친 일반화라고 보일 수도 있다. 정서 경험 및 표출에  
서 발견되는 문화간 차이는 문화에 따른 정서 개념의 차  
이, 각 개별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조건 차이, 정서 유발  
상황의 평가 및 귀인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에 근거하여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Matsumoto, 2000, pp.298-311).  
그러나 이러한 제반 차이는 일차적으로 개인주의와 집단  
주의 또는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의 관심과  
주의가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의 복지 및 안녕, 독특성  
및 자율성의 확보와 신장에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상  
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내집단원과의 조화와 화  
목한 관계의 확립과 유지에 기울어져 있는지에 따라 나  
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문화유형(문화성향)  
에 따라 개체로서의 독립적인 자기를 주의의 핵으로 하  
여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집단원과 맺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핵으로 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 하  
는 데 따라 인지·정서·동기 같은 인간 심성의 제반 측  
면에서의 차이가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다(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 Matsumoto, 2000). Nisbett  
(2003)도 서구(개인주의 사회)인과 동아시아(집단주의  
사회)인이 보이는 제반 차이는 전통적으로 이 두 사회인  
이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개체의 독립적 속성을 주  
의의 초점으로 삼느냐, 아니면 개인 사이의 관계를 중시  
하여 개인 사이의 연계성과 조화의 추구를 주의의 초점  
으로 삼느냐 하는 데 따라 분석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틀을 배경으로, 문화유형에  
따른 분노의 경험과 그 표현 양식의 차이, 특히 문화유형  
에 따른 분노통제 행동의 차이를 매개하는 분노경험과 공  
감 수준의 효과를 동일 문화 내의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  
이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 연구는 동일  
문화 내의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를 문화간 비교 연구로  
해석하는 데에 개재하는 문제점, 본질적으로 실험 연구가  
아닌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개재하  
는 문제점 및 정서의 측면에서 한창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는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에 개재하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연구는 동일 문화내의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

를 통해 문화 비교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문화 비교 연구는 문화간 비교 분석 방법과 문화내적 분석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Smith, Bond, & Kagitcibasi, 2006; Triandis, McCusker, Betancourt, Iwao, Leung, Salazar, Setiadi, Sinha, Touzard, & Zaleski, 1993), Smith(1995)에 따르면 문화간 비교 분석 방법에 따라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는 32.5% 정도이고, 이 연구와 같이 단일문화 내에서 문화성향의 개인차를 측정하여 이 문화성향을 기초로 집단간 비교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가 32.6%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내적 분석 방법이 문화 비교 연구의 주요 방법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내적 분석 방법은 문화간 비교 분석 방법이 가지는 과학적 차민주의(scientific ethnocentrism)의 문제와 문화간 동등성(cultural equivalence) 확보의 곤란성의 문제(Yang, 2000)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문화 연구의 방법이다(Sedikides et al., 2003).

그러나 문화내적 분석 방법이 가지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화 비교 연구는 본질적으로 문화 간 비교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문화 비교는 일차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유형을 가지고 있는 집단(국가) 간에 나타나는 제반 차이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와 같은 동일 문화내의 문화성향 집단간의 차이는 문화간 비교 분석의 방법으로 재검되어야 문화 연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강한 집단주의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들에 게서 찾아진 본고의 결과들이 미국 같은 개인주의 사회의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에게서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두 문화성향집단을 묶어서 집단주의 사회인과 개인주의 사회인으로 종합하여 분석할 경우에도 문화차 비교 연구에서 예측하는 대로의 차이(본고의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차이)가 나타나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독립변인인 문화성향을 유발하거나 조작한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자들에게 기존하고 있는 문화성향을 측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비교하는 개인차 분석의 방법

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밝혀진 문화성향 집단 사이의 차이가 전적으로 그들의 문화성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즉,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분노경험 수준, 분노표현 행동, 공감 수준의 차이가 그들의 문화성향 이외에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가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실험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다.

물론 문화 비교 연구를 실험 방법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실험실 내에서 지시를 통해 집단주의/개인주의적 가치나 성향을 촉발시킨 후, 동일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는 점화효과(priming effect)를 원용한 실험 연구가 최근에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예 : Choi, Dalal, Kim-Prieto, & Park, 2003; Hong, Chiu, & Kung, 1997; Hong, Morris, Chiu, & Benet-Martinez, 2000; Mitchell & Silver, 1990; Trafimow, Triandis, & Goto, 1991 등). 이러한 연구들은 지시에 의해 주의의 초점을 다르게 함으로써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문화성향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sup>16)</sup>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를 실험실 속으로 끌어들이고자”(Trafimow et al., 1991, p.654)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결과들이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문화성향의 차이 때문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이 한창 발달 과정 중에 있는 고등학생들에 국한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문화의 배경에 유학사상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한국인의 정서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유학사상적 배경이 현대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는 점은 문제가 될

16) 주의의 초점을 달리 하면 서로 다른 문화성향이 촉발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유형(문화성향)에 따른 주의 초점의 차이가 자기표현 양식과 정서사회화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본 연구의 기본틀과 상통하는 것이다.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분노경험을 고등학생들에게 특유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특성분노 척도(STAXI)만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고등학생의 특성을 감안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더 광범위한 대상자들에게서 이 연구의 결과들이 재검되어야 결과 해석의 일반화에 무리가 실릴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재홍 (2001).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분배규범의 선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3), 1-16.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 문화 비교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박성희 (1994). 공감·공감적 이해. 서울 : 원미사.
- 설선혜, 최인철 (2008). 자아 참조의 뇌신경적 처리에서의 성격특성과 집단정체성 비교.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편, 2008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pp.48-59). 서울 :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 이수원, 이현남 (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인의 특성 : 심리학적 탐색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pp.63-79). 서울 : 한국심리학회.
- 장성수, 이수원, 정진곤 (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한양대학교 한국교육 문제연구소), 3, 217-265.
- 전경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관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개발 연구 : IV. 미술치료학회, 7(1), 33-50.
- 조궁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24-149.
- 조궁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 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5(1), 104-139.
- 조궁호 (1997).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 :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6(2), 1-43.
- 조궁호 (1999).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 조궁호 (2000).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 한국인의 동기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2), 83-122.
- 조궁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궁호 (2003a).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 나남출판.
- 조궁호 (2003b). 문화성향과 통제양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85-106.
- 조궁호 (2005). 문화성향에 따른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45-63.
- 조궁호 (2006).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서 비교 :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 서울 : 지식산업사.
- 조궁호 (2007a).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 심리학적 접근. 서울 : 지식산업사.
- 조궁호 (2007b).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사상 :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1(4), 21-53.
- 조궁호 (2008).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적 함의.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궁호, 김소연 (1998). 겸양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조궁호,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조궁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 (2002). 문화성향과 공감 및 고독의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3), 15-34.
- 조궁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조궁호, 이재영 (2007). 문화성향, 성역할 정체감 및 도덕적 지향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1(1), 105-126.
- 조은경 (1995). 정서적 균형과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 편. 삶의 질의 심리학(pp.25-43). 서울 : 한국심리학회.
- 朱熹 (1177). 論語集註(京城書籍組合編, 原本備旨 論語集註. 서울 : 太山文化社, 1984).

- 朱熹 (1177). 孟子集註(京城書籍組合編, 原本備旨 孟子集註. 서울 : 太山文化社, 1984).
- 朱熹 (1177). 大學集註(京城書籍組合編, 原本備旨 大學·中庸. 서울 : 太山文化社, 1984).
- 한규석, 오점조 (1993). 아동의 교류 양상에 대한 분석 :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홍미화 (2002).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완벽주의성향, 자의식 및 공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 Springer.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tson, C. D., & Coke, J. S. (1981). Empathy :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In J. P. Rushton & R. M. Sorrentino(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 Social, personality,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pp.167-187). Hillsdale, NJ : Erlbaum.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 A cognitive 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 494-503.
- Briggs, J. (1970). *Never in anger : Portrait of an Eskimo famil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 Chiao, J. Y., Harada, T., Komeda, H., Li, Z., Mano, Y., Saito, D., Parrish, T. B., Sadato, N., & Iidaka, T. (in press). Neural basis of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views of self. *Human Brain Mapping*.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3). Culture and judgment of causal reas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46-59.
- Davis, M. H. (1980).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Ekman, P. (1982). *Emotions in the human face*(2nd ed.).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kman, P. (2003). *Emotions revealed*. New York : Times Books.
- Ekman, P., & Friesen, W. V. (1969). The repertoire of nonverbal behavior : Categories, origins, usage and coding. *Semiotica*, 1, 49-98.
- Feshbach, N. D. (1982).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in children. In N. Eisenberg-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2, pp.915-981). Boston, MA : McGraw-Hill.
- Fiske, S. T., Kenny, D. A., & Taylor, S. E. (1982). Structural models for the mediation of salience effects on attribu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105-127.
- Harré, R. (Ed.) (1988). *The 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s*. Oxford, England : Blackwell.
- Harvard-Yenching Institute (1940). 論語引得. HYI Sinological Index Series, Supplement 16.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vard-Yenching Institute (1940). 孟子引得. HYI Sinological Index Series, Supplement 17.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Heelas, P. (1988). Emotion talk across cultures. In R. Harré(Ed.), *The 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s*(pp. 234-266). Oxford, England : Blackwell.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

-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London : McGraw-Hill(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 학지사, 1995).
- Hong, Y. Y., Chiu, C. Y., & Kung, T. M. (1997). Bringing culture out in front : Effects of cultural meaning system activation on social cognition.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Vol.1, pp.135-146). Singapore : Wiley.
- Hong, Y. Y., Morris, M. W., Chiu, C. Y., & Benet-Marti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709-720.
- Johnson, D. W. (1990). *Reaching out : Interpersonal effectiveness and self-actualiz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Kagitcibasi, C.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3, pp.1-49). Boston, MA : Allyn & Bacon.
- Kalat, J. W., & Shiota, M. N. (2007). *Emotion*. Australia : Thomson(민경환, 이옥경, 김지현, 김민희, 김수안 역. 정서심리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7).
- Kemper, T. (1984). Power, status, and emotions : A sociological contribution to a psychophysiological domain. In K.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pp.369-383). Hillsdale, NJ : Erlbaum.
-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Vol.1, pp.247-259). Singapore : Wiley.
- Krebs, D. L.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34-1146.
- Kurman, J. (2001). Self-enhancement : Is it restricted to individual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1705-1716.
- Lemerise, E. A., & Dodge, K. A. (1993). The development of anger and hostile interac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pp.537-546). New York : Guilford.
- Levy, R. I. (1984). The emo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K. R. Scherer & P. Ekman(Eds.), *Approaches to emotion*(pp.397-412). Hillsdale, NJ : Erlbaum.
- Lewis, M. (1993). Self-conscious emotions : Embarrassment, pride, shame, and guilt. In M. Lewis & J.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pp.563-573). New York : Guilford.
- Li, J., Wang, L., & Fisher, K. W. (2004). The organization of Chinese shame concepts. *Cognition and Emotion*, 18, 767-797.
- Lutz, C. (1988). *Unnatural emotions : Everyday sentiments on a Micronesian atoll and their challenge to Western theory*. Chicago,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Eds.), *The self :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18-48). New York : Springer.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pp.89-130).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tsumoto, D. (1989). Cultural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emo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92-105.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 People around the world*(2nd ed.). Belmont, CA : Wadsworth.
- Matsumoto, D., & Ekman, P. (1989). American-Japanese 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universal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Motivation and Emotion*, 13, 143-157.
- Matsumoto, D., Kudoh, T., Scherer, K., & Wallbott, H. (1988). Antecedents of and reactions to emo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267-286.
- Mitchel, T. R., & Silver, W. S. (1990). Individual and group goals when workers are interdependent : Effects on task strategies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185-193.
- Miyake, K., Campos, J., Kagan, J., & Bradshaw, D. L. (1986). Issues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H. Stevenson, H. Azuma, & K. Hakuta(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pp.239-261). New York : Freeman.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 Free Press(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서울 : 김영사, 2004).
- Oatley, K., Keltner, D., & Jenkins, J. M. (2006). *Understanding emotions*(2nd ed.). Cambridge, MA : Blackwell.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 (decentering)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42, 593-605.
- Reeve, J. (2005).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4th ed.). Hoboken, NJ : Wiley.
- Saarni, C. (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In M. Lewis & J.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pp. 435-446). New York : Guilford.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0-79.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mith, P. B. (1995).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Looking to the fu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588-590.
- Smith, P. B., Bond, M. H., & Kagitcibasi, C. (2006). *Understanding social psychology across cultures*. Thousand Oaks, CA : Sage.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research ed.). Tamp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F., & Crane, R. J. (1983). The State-Trait Anger Scale.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Vol.2). Hillsdale, NJ : Erlbaum.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F., Crane, R. J., Jacobs, G.,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Washington, DC : Hemisphere.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89-108). New York : Springer.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 207-232.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1391.

- Trafimow, D., Triandis, H. C., & Goto, S. G. (1991). Some test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self and the collectiv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49-655.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4a).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 McGraw-Hill.
- Triandis, H. C. (1994b). Major cultural syndromes and emotion. In S. Kitayama & H. R. Markus(Eds.), *Culture and emotion :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pp.285-306).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iew.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eocentric tendencies :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cCusker, C., Betancourt, H., Iwao, S., Leung, K., Salazar, J. M., Setiadi, B., Sinha, J. B., Touzard, H., & Zalaski, Z. (1993). An etic-emic analysi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366-383.
- Yang, K. S. (2000). Monocultural and 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es : The royal road to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global psycholog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41-263.

## Cultural Dispositions, Control of Anger, and Empathy

Geung-Ho Cho      Ji Yeon Kim      Keong Soon Choi  
Sogang University

In this article, two studie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 tendency to control anger in terms of the participants' differences in cultural dispositions. The Korean high-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diocentrics who have individualistic cultural dispositions and allocentrics who have collectivistic cultural dispositions) and instructed to evaluate their levels of experiencing anger (state-anger and trait-anger) and expressing behaviors of them (anger-out, anger-in, and anger-control) (Study 1), and their levels of anger-control and empathy (Study 2). In study 1, it was found that idiocentrics experience higher levels of state-and trait-anger, they express them more in everyday life situations than allocentrics, but allocentrics control their anger more than idiocentrics, and these differences of anger expressing behaviors were mediated by the level of trait-anger. In study 2,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empathy of allocentrics were higher than that of idiocentrics, and this difference mediates their anger-control behavior.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was discussed that allocentrics and people in the collectivistic societies are socialized to control their anger to maintain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o develop their ability to empathize with peers from early in their life.

**Keywords:** Cultural disposition(Idiocentrism-Allocentrism); Level of anger; Anger-control; Empathy; Display rules of emotion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2월 13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2월 16일